

## 살아나리라

(요11:17-23)

1.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죽을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나사로의 '죽음'은 상징적이죠. 등장인물들 모두가 나사로의 죽음처럼, 죽음 같은 불신앙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구절들을 관찰해 봅시다.

1.1. (관찰) 나сар은 베다니에 삽니다(1).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려 어디로 가자고 하십니까? 또 그곳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7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 )로 가자

9-10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 )에 다니면 ( ) 실족하느니라

1.2. (관찰) 마리아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32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뵈옵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 )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1.3. (관찰) 대중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또 이에 대한 예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33 예수께서 그(마리아)가 ( )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 )을 보시고 심령에 ( ) 불쌍히 여기사... 35 예수께서 ( )을 흘리시더라

1.4. (나눔1)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와 공동체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2. 본문에서 마르다는 가장 중요한 화자로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르다를 관찰해봅시다.

2.1. (관찰) 진작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마르다에게 예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 )이요 ( )이니 나를 ( )는 죽어도 살겠고

2.2. (관찰) 마르다는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27 ( )는 ( )시오 세상에 오시는 ( )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2.3. (관찰) 그러나 실제 죽음을 막아 놓은 돌 앞에서는 무엇이라 합니까?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 )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 )이 되었으매 벌써 ( )

2.4. (나눔2)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공관복음서(마,막,눅)에서 모두 '십자가 신앙'의 문맥에서 베드로를 통해 고백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용어만 맞지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오해된 고백이기 때문에 모든 문맥이 '예수의 경고'로 마무리 됩니다.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부활 신앙’과 관련된 문맥에서 마르다의 입을 통해 고백됩니다. 마르다는 고백도 잘하고 믿는 다고 했지만, 무덤 앞에 서자 믿지 않습니다. 즉, 베드로의 고백에서는 ‘오해된 고백’에 대한 경고였다면, 마르다의 고백에서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천적으로는 믿지 않는 ‘실천적 무신론자’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나 역시도 신앙 고백은 잘 하지만 베드로처럼 자기 성공을 위한 능력 예수만을 믿거나, 혹은 마르다처럼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부활 예수를 믿지 못해 두려움과 초조함, 조바심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을 나누어봅시다.

#### ■ 삶을 위한 기도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생명의 하나님. 죽음 같은 시대에, 버려진 채 살고 있는 듯한 가여운 생명들에게 찾아가셔서 생명의 희망을 주시고, 오늘 우리들도 수많은 죽음 같은 문제들에 부딪힐 때마다 부활의 권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소서.